

해명자료

문의 : 통신정책국 시장조사과 이창희 과장(☎750-2630)
시장조사과 김준모 사무관(☎750-2634) idjoonmo@kcc.go.kr

아시아경제 보도(7.11) 관련 방통위 입장

'11. 7. 11(월) 아시아경제의 "LGU+, 보조금 장부조작 말썽 관행인데..."
제하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
해명합니다.

□ 보도 내용

「한 이통사 관계자는 "강제권이 없는 방통위의 제한적인 현장조사권도
문제지만 무엇보다 조사 이전에 미리 이통사를 상대로 '조사하겠다'고
널리 알린 점도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"며 꼬집어 말했다」고
보도함

□ 해명 내용

동 기사의 내용 중 방통위 조사 착수전에 이통사에 조사사실을 통보한
것처럼 이통사 관계자를 인용하여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,

방통위는 6월 21일 사실조사 착수전에 대상 사업자인 이통 3사에
조사착수 사실을 알린 바 없습니다.